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제 1독서 : 출애24,3-8제 2독서 : 히브9,11-15

복 은 : 마르14,12-16;22-26

# 술정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마르 14, 22b. 24)

강 론

소 리

## 나눔 안의 일치

방의성 신부 / 송학동 천주교회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뒤 우리에게는 그분의 행적과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만이 남아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게됩니다. 아마 적은 분량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훌쩍 사라져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감각적인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기 이미 전에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현존을 당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들 안에서 "내 이름으로 들이나 셋이 모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의 식으로, 그리고 인간들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며 당신의 현존방법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의 특별한 방법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체와 성혈로서의 현존이지요. 이 성체와 성혈의 신비에서 우리는 나눔 안의 현존을, 나눔 안의 일치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례상의 뺨과 포도주의 나눔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골고타 길에서 찢기고 흘렸던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반성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전 삶의 모범을 기념하며 이 예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미사 중에 상장으로써의 밀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중에 삶으로써 예수의 현존을 실현시키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현존하고 있습니까? 아니, 계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 아집과 편견, 탐욕과 방종이 온통 자리를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를 만나 뵙고 싶다면 갈릴레아로 갈 필요까진 없습니다. 우리-나와 너-안에서 예수를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랑을 기초로 한 나눔 안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 흙묻은 발

노모를 모시고 있는 두 친구가 있었다. 둘 다 효심이 지극해 효자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은 아무리 공경을 다해도 어머니께서 흡족해 하지 않는데 못내 마음이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친구는 밖에서 돌아오자 흙묻은 두발을 쭉 내밀었고 그의 어머니는 물을 떠다가 정성스레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모습이 보기에 정겨웠다.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드래도 물가의 어린 아이로 생각하고 격정을 한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다. 친구는 발을 씻김으로써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다.

6월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무한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할 예수 성심 성월이다. 풋풋하고 성그리운 여름이 달려오는 청록의 달 6월을 맞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흙묻은 발을 내밀어야겠다. 1백억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다는 패륜을 저지르고 주님을 외롭게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야 하는 달이다.

내일은 조국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숨져간 영령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왜 군육상쟁의 비극을 연출한 6월의 6일을 현충일로 정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충일이 왜 생겼는지, 행사에 그치고 있는 듯한 현충일에 담긴 뜻을 생각해봐야 하겠다. ◻

## 술정이 산책



성체는 하느님의 몸과 피

## “하느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창세 29, 31~30, 24)

이 대목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베냐민을 제외한 열한 아들과 딸 디나가 태어나는 경위와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얻고 안살림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 낳는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야곱은 레아에게서 여섯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라헬의 몸종 빌하와 레아의 몸종 질바, 그리고 라헬에게서 각각 두명의 아들을 얻었다.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라헬에게서 얻은 베냐민의 탄생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레아와 라헬은 하느님의 보살피심과 연관되어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들의 뜻을 본문에 따라 차례로 살펴 본다.

남편에게 차별대우를 받던 레아에게서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느님께서는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주셨지만 태는 열어 주지 않았고,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 주셨지만 남편의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차별대우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문에 미워를 받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덜 사랑을 받는다는 뜻의 과장된 표현이다. 첫 아들 르우벤은 “나의 고통을 보다”와 ‘나를 사랑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와 연결된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듣다’, 셋째 아들 레위는 ‘이어지다’, 넷째 아들 유다는 ‘내가 하느님을 친양하다’라는 단어와 각각 연결된다. 언니 레아가 이렇게 많은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보고 동생인 라헬이 질투를 느끼지 않을 리가 없다. 그래서 라헬은 몸종 빌하를 소설로 들여 보내고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무릎에 앉는다’는 표현은 양자로 받아들일 때의 예식행위이다. 빌하가 낳아 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이름 단은 ‘하느님이 나의 속사정을 들어 주셨다’는 라헬의 말과 연결된다. 또 빌하가 두 번째로 낳아 준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는 ‘내가 힘겹게 투쟁하였다’는 라헬의 말과 연결된다.

라헬이 그녀의 몸종 빌하를 통하여 아들을 들이나 갖게 된 걸 보고 이제는 자신의 태가 막힐 줄로 알고 있는 레아도 몸종 질바를 야곱의 소설로 들여보낸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을 레아는 가드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질바는 또다시 야곱에게 그의 여덟 번째 아들을 낳아 주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뜻의 아셀이라는 이름을 아기에게 붙여 준다.

그러다가 어느날 큰 아들 르우벤이 자귀나무를 레아



에게 갖다 바치는데 히브리말로 두다임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사랑’ 또는 ‘연인’이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 열매를 ‘사랑의 사과’라고 부르면서 최음제로 사용했다. 레아는 이 나무를 나누어 달라는 청을 거절하지만 하룻밤 남편과의 잠자리를 양보해 주겠다는 흥정을 받아들이고 자귀나무를 갈라 준다. 그렇게 해서 레아는 야곱에게 아홉 번째 아기를 낳아 주고 ‘보상’이라는 뜻의 이싸갈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여기서 보상은 레아가 자신의 몸종 질바를 소설로 들여보낸데 대한 하느님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후 레아는 그녀로서는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열 번째 아들을 낳아 주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시다’는 뜻의 즈불룬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다. 한편 자귀나무 열매를 먹고 라헬도 야곱에게 열한 번째 아들을 낳아 준다. 레아의 딸 이름 디나에 대한 설명은 없고,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씻어 주다’와 ‘하나 더 주다’는 단어와 연결시켜 그 이름의 뜻이 풀이된다.

위에 소개된 야곱의 결혼생활은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생활일 것이다. 그러나 여자에게 아무런 생계수단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가족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리려 했던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던 결혼 형태였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귀중한 메시지는 두 여인이 자신들의 문제에 하느님을 끌어들이고 하느님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하느님 편에서는 이들의 갈등과 무질서를 몸소 원만하게 풀어 나가셨다는 것이다.

### 향토회관

회감, 결혼피로연 등  
단체손님 환영  
안 춘자(소피아)  
성락프라자 지하  
(북전주 세무서 앞)  
☎ 75-7666

### 현대전자전주서비스센터

- 컴퓨터 연중 무휴 교육 실시
- 제품 공장도가 구입가능
- 수강료 1인 5,000원(주간, 야간반)

김 대식(대건안드레아)  
공설운동장 정문 맞은편  
☎ 251-1472

###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에 다가고 입구  
김 태우(알퐁소)  
☎ 88-7717~8

###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티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농즙기, 마마깨주부  
**최학만(바오로)**  
**송계순(소화 데레사)**  
☎ (0652) 254-7928~9  
FAX (0652) 254-2931

## 교리상식

2년여 동안 연재해 오던 '5분 교리'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전례 전반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간절한 청원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전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례란 한마디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인 미사와, 우리를 초자연적 생명에 참여케 하는 성사, 그리고 교회가 매일 드리는 성무일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로사리오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회 등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도는 전례기도에로 지향된 것이며, 전례기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전례기도는 교회 전체의 기도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기도로써 모든 신자들이 내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례는 교회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전례 10장)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음호부터 새로이 소개되는 교리 상식은 되도록이면 전례 주기를 따라 소개한다. 이 날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전례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교구소식

- 천호 피정 안내 : 6월9일(목) 주제—하느님이 원하시는 가정, 강사—김진석 신부  
6월11일~12일 주제—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강사—송열섭 신부, 문의 73-6600
  - 주일학교 담당 수도자 여름 연수 오리엔테이션 : 6월10일(금) 오후2시 가톨릭센타
  - 사랑의 다리 월례회 : 6월13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타 강당(6월6일 현충일 관계로)
  - 하나회 성지 순례 : 6월12일(일) 해미
  - 빈첸시오 일일 임원 봉사 : 6월11일(토) 오후12시 이평북 분교
  - 예비 신학생 체육대회 : 6월12일(일) 오전9시30분 윤호관
  - 가톨릭 약사회 피정 : 6월8일(수)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강사—범석규 신부
- \* 축! 영명 : 11일(성 바르나바) 박영규 신부님

## ● 성소모임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 6월12일(일) 오후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842-4132

거룩한 말씀회 : 6월12일(일) 오후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 (0652)222-5269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맑은 물을 위한 가정생활 지침(6)

아외에 놀러 갈 때 사용한 난분해성 식품포장지 등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 제주 보리빵

특약점모집(성당 신심단체 환영)  
100% 무방부제, 무가당제품  
당뇨, 비만, 미용건강식  
문재원(모니카)  
☎ (0652)222-9787

## 활티생수

청주교구 미원성당 샘물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군산(0654) 64-4481

##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 늘푸른집

- 샘이랑 : 온몸, 샴푸, 린스 겸용
  - 천연센 : 부엌용(야기센, 맑은센)  
전경자(베로니카)
- ☎ 86-2050  
☏ 012-682-6543

첫째 주일은 사제양성 후원회비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 요십이 (1084) 김병오

한총련 대학생들이  
용공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군!

학생들!  
그런 짓을 하면  
국민들이 박수만 친다  
그럼 무엇을...

국정조사에  
민자당은 협조  
하라고 하면  
박수친다  
짝! 짹!

신부님 죄송합니다  
5월26일 광주·전주 신부님들의 친선  
벌야구 경기 5회말 때 야구규칙 2·23  
의 3. 1루 또는 3루를 넘어 파울 지역  
안에 최초로 떨어진 것을 본인의 실수  
로 페어볼로 선언을 2회 하는 바람에  
광주신부님들의 승으로 끝을 맺어 죄  
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건  
데... 김병업 신부

## 환경교수강생및회원모집

환경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  
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의 아들, 딸이  
다음 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야말로 우리 후손을 위한 소중한 선택입  
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 86-7977, FAX 87-6637  
상임의장 전봉호 공동의장 김치덕

##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친 랑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 ◎ 성소후원회에 적극 가입합시다!
-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
- 2.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평일미사 후 동산 앞에서 기도 있음.
- 3. 특별기도와 성체강복: 10일 저녁미사 후 사목회 주도
- 4. 노송 운행의 밤: 8일·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 5. 청년회 단합대회: 6일 관촌 사선대. 회비—오천원
- 6. 영세자 집종교리: 7일~10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 7. 세례식: 12일, 전 9시
  - \* 대부, 대모님과 함께 8시30분까지 입장
- 8. 견진교리 안내: 14일~17일, 21일~24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 9. 중·고생 견진교리: 5일, 12일, 19일~후 3시
  - 18일~저녁미사 후
- 10.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7일, 어머니미사 후)  
②세실리아회(10일, 저녁미사 후)  
③장우회(12일, 장엄미사 후)
- 11. “견진 교리서”판매: 사무실 1,000원  
견진 받으실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12. 금주 청소: 중노23, 24반  
차주 청소: 중노27, 인후1반

□ 지난주 봉헌금: 1,013,330원 □ 교무금: 1,28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 1. “축”첫영성체: 20명 오늘 공식미사 후 축하합니다.
- 2.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 4. 구역분과회: 7일(화) 오전 10시
- 5. 물드레아: 7일(화) 저녁미사 후
- 6. 안나회: 9일(목) 오전 10시
- 7. 여성분과회: 11일(토) 오전 10시
- 8. 고3 모임: 11일(토) 저녁미사 후
- 9. 요셉회: 12일(일) 공식미사 후
- 10. 전례해설자 모임: 12일(일) 공식미사 후
- 11. 꾸리아: 12일(일) 후 2시
- 12. 청년회: 12일(일) 저녁미사 후
- 13. 복자ME 모임: 매월 끝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대표: 신일규(아우구스티노) 윤귀자(로사리아) 부부  
총무: 박남수(요셉) 이정희(마르타) 부부
- 14. 성당 청소: 11일(토) 구제주의 모친, 일치의 모후Pr
- 15. 금주 전례: 해설-유두숙. 독서-유단수 씨 부부  
봉헌-첫영성체자
- 16. 차주 전례: 해설-허정석. 독서-오교성 씨 부부  
봉헌-박남수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62,220원 □ 교무금: 1,263,9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 회비 납부의 날
- 2.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자모회-11일(토) 저녁 ③안나회- 다음주 일
- 3. 주일학교 간식 도움주신 분: 오칠규, 최상운, 양주태, 송순혜, 이정자, 김금자, 이순자, 감사합니다.
- 4. 병자 봉성제: 9일(목) 오전 9시
- 5. 미사시간 변경: 평일 저녁 8시로
- 6. 즐거운 산행: 6일(월), 순창 회문산
- 7. 축! 혼인: 신랑-박현규, 신부-유미숙(말지나)  
12일(일) 오후 2시30분 상관 성당  
신랑-강무중, 신부-정경인(아가다)  
12일(일) 12시 무주 성당
- 8. 금주 청소: 신비로운 장미Pr, 차주 청소-천사들의 모후Pr
- 9. 금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양주태 ②이석남  
봉헌-김성수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김봉길 ②임행남  
봉헌-안복성 씨 부부

\* 본당방전을 위한 현금: 137,220원

□ 지난주 봉헌금: 372,340원 □ 교무금: 26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1. 가정방문: 6월8일(수) 10시 진홍 하이츠 아파트
- 2. 첫영성체: ①교리 일시-6월7일(화)~7월8일(금), 화, 수, 목, 금 오후 5시  
②대상-국교3학년 이상 남녀(부모님이 신자인 어린이)  
③교재 대금-1천2백원  
④첫날 모임-6월7일(화) 부모님 중 한 분은 꼭 참석바랍니다  
⑤첫영성체일-7월9일(토) 오후 4시 미사  
※신청은 교재대금과 같이 교사나 사무실에 하시기 바랍니다
- 3. 꾸리아: 6월5일(오늘) 오후 2시
- 4. 사목회: 6월7일(화) 오후 9시
- 5. 물드레아: 6월9일(목) 오후 8시
- 6. 프란치스코3회: 6월12일(다음주일) 오후 2시
- 7. 성전 보수 현금 신입신분(지난주): 의2명-각 50만원. 엄순성-20만원. 의명-10만원, 10반 반원-10만원. 백은발, 박석근, 조분례 3명-각 5만원, 의명-4만원. 김영애-2만원. 김옥례-1만원.
- ※ 지난주 신입액: 1백6십2만원, 5월29일 현재 2백4십9세대 신입하였습니다.
- \* 신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입 못하신 분들도 함께 참여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55,200원 □ 교무금: 1,438,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 원 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행

-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 1. 금주: ①울드레아(공식미사 후)  
②제속 글라라행제회(후 1시30분)  
③요셉회(후 6시)
- 2. 돈·보스꼬회: 8일(수) 오후 7시30분
- 3. 성당 내부 벽갈이 공사: 7일부터  
평일미사(소강당)  
주일미사(전 9시, 10시30분-야외)  
(전 5시30분, 후 3시, 5시, 7시-소강당)
- 4. 여성단체 피정: 6월9일(목) 오전 8시20분 출발  
회비-12,000원. 장소-천호 피정의 집. 회망자 5일까지 사무실 접수
- 5.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6. 고정 전례 안내  
①유아세례: 흘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②고백 성사: 평일미사 후  
③차량 축복식: 흘수달 마지막주일 공식미사 후  
④성제강복 및 조례: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⑤병자 봉성제: 매월 첫 금요일  
⑥혼인 면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지난주 봉헌금: 2,018,53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 ◎ “착한 음식 착한 목자 우리 먹여 길으시고 영생 행복 주옵소서”
- 1. 예수 성심의 밤: 10일 저녁 7시30분. 일반, 청년, 학생, 예수 성심께 드리는 글 준비바랍니다.
- 2. 구역 반회장 연수회: 7일 전 10시30분 기도회 일시 보고
- 3. 사목회 상임 위원회: 9일 저녁 8시
- 4. 평화 M.E. 대기대회: 19일(일) 전 10시 동상 수만리
- 5. “초남리에서 치명자산까지” 각 가정마다 1부씩 비처
- 6. 1인1단체 가입 권고: LM 회합시간 안내: 주일-오전 9시. 여성-수요일 오전 9시30분, 적장인-수요일 오후 8시
- 7. 초등부 어를 신왕학교 교재: “아빠 하느님” 책값 900원
- 8. 기도회 순회: 11구역 13구역 기도회 요일과 시간 보고
- 9. 회의: Cu-오늘 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빈첸시오회-8일 어머니미사 후  
자모회-8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10일 후 3시  
성체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청년성가대-다음주 저녁미사 후

\* 주일미사 련하지 말고 주일을 기록하게 지내십시오.